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137-170  
<https://doi.org/10.29212/mh.2024..133.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와 東眞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 연구

강재광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1219~1222년 동진과 고려의 군사·외교 관계
  3. 1224년 동진의 대고려 화친 시도와 그 성격
  4. 1225~1229년 동진의 고려 침공 및 화친 재시도와 고려의 대응
  5. 맺음말

**초 록** 고려는 1219년 몽골과 형제맹약을 체결한 후에 동진국과도 외교관계를 맺었다. 동진 사신은 1219~1222년에 갈라로 방면으로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고려에 왔는데, 몽골 사신을 위한 사행길 안내, 몽골 사신 호위 및 세공 운반, 몽골 사신과 세공 배분, 조군 요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224년 1월 몽골에 이반한 동진은 고려에 각장 설치를 조건으로 화친을 제의하였다. 동진 측의 각장 설치 요청은 그들의 식량난 및 생필품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고려는 동진과 화친하고 몽골을 배반하는 것은 장차 몽골군의 침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서 각장 설치를 거부하였다.

고려가 동진의 화친 제의를 거부하자 1225년부터 고려-동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1227년 9월에 동진군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자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편성하여 맞섰지만 의주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하지만 북계 군사들을 이끌고 화주성으로 들어온 낭장 김이생이 동진군과 싸워 적군을 1,100명이나 베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동진군과의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동진은 1229년 2월부터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는데, 이는 몽골이 다시 요동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고종이 파견한 특사인 식목녹사 노연은 동진과의 화친 체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무인집정 최우는 예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는데, 진용갑은 동진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북변 사람 예작을 동진국으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예작은 첩자로 오인 받아 동진국에서 처형되었다. 예작 처형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우정권은 외교문서 왕래 등 동진국과 외교적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루트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동진, 동진군, 갈라로, 화친, 각장, 화주성전투, 김이생, 진용갑, 예작, 최우정권

(원고투고일 : 2024. 10. 7.,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 1. 머리말

동진은 금나라의 요동선무사 蒲鮮萬奴가 1216년(고종 3) 요동의 요양에 세운 大眞國이 몽골세력에 의해 두만강 유역으로 쫓겨 오면서 불리게 된 국호이다.<sup>1)</sup> 동진은 1218년(고종 5)을 전후하여 몽골에 복속되어 그들의 부용국이 되었는데,<sup>2)</sup> 1219년(고종 6) 강동성전투에 참전하여 고려와 몽골이 契丹遺種을 섬멸하는데 기여하였다.<sup>3)</sup> 강동성전투 이후에 동진은 고려 국경 밖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몽골 사신과 더불어 고려에 와서 공물 요구를 하는 등 고려 측과 일정한 외교적 관계를 맺었다. 대몽전쟁기(1231~1259) 이전에 고려는 동진과 화친을 시도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대동진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외교적 현안이었다.

그동안 고려시대사 학계에서는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와 동진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를 전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는 형편이다.

1) 13세기 초반 등장한 東眞(東夏)에 관한 연구는 국외 학계에서 동진의 건국 과정, 국가적인 성격 및 흥망성쇠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王愼榮·趙鳴岐, 『東夏史』,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朴眞奭, 『東夏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5; 魏志江, 「論金末蒙古·東夏與高麗的關係」, 『韓國學論文集』8, 2000; 薛磊, 『元代東北統治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2) 1216년(고종 3) 10월 몽골군 장수 木華黎에게 투항했으나 얼마 안 있어 反蒙自立 하였던 동진이 다시 몽골에 복속되었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동진이 몽골의 부용국이 되어 1219년(고종 6) 강동성전투에 참여했으므로 1218년(고종 5) 혹은 그해 직전에 동진이 몽골에 다시 복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3) 『高麗史』권103, 列傳16, 趙冲·金就礪·金仁鏡 및 『高麗史節要』권15, 高宗 6년 1월 '契丹賊 항복 기사' 참조.

다만, 강동성전투 직후 고려-몽골 사이에서 체결된 兄弟盟約을 중요하게 다루고 나서 부수적으로 강동성전투에서 동진의 역할을 간단히 언급한 연구들이 산견되고,<sup>4)</sup> 고려 고종 때에 국한하여 고려와 동진의 관계 추이를 분석한 석사학위논문도<sup>5)</sup> 제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동양사적 시각에서 동진이 건국한 후 1233년(고종 20) 멸망하는 시기까지 고려-몽골-금-동진의 역학관계 변화를 분석하면서 고려와 동진의 외교적인 문제(특히 고려-동진 사이 화친 시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sup>6)</sup> 눈에 띄며, 대몽전쟁기(1231~1259)에 동진이 몽골의 부용국이 되어 고려의 동계·춘주도 방면을 침공한 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가<sup>7)</sup> 발견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동진의 전쟁과 화친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1219년 강동성전투에서 대몽전쟁 발발 직전인 1229년(고종 16)까지<sup>8)</sup>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벌어진 군사(전쟁 포함)

4) 고병익,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6, 1969; 이개석, 「麗蒙兄弟盟約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사료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101, 2010; 신안식, 「고려 고종초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김취려의 활약」, 『한국중세사연구』30, 2011; 최윤정, 「몽골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209, 2011; 이개석, 「몽골·동진·고려 연합군에 의한 강동성 함락과 여몽형제맹약의 성격」,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고명수,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歷史學報』225, 2015; 이익주, 「1219년(高宗 6) 고려-몽골 ‘兄弟盟約’ 再論」, 『東方學志』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고명수,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몽골-고려 관계 연구』, 해안, 2019; 이명미, 「강동성의 맹약에서 강화(講和)에 이르기까지」, 『고려몽골 관계 깊이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5) 이재선, 「고려 고종대 대동진관계의 추이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50, 2017.

7) 강재광, 「대몽전쟁기 동진(東眞)의 고려 침입과 고려의 군사적 대응」, 『한국중세사연구』75, 2023.

8) 대몽전쟁(여몽전쟁)은 1231년(고종 18)에 발발하였지만, 대몽전쟁 이전 고려-동진 사이의 외교관계 기록의 하한선은 1229년(고종 16)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229년까지로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관계, 외교 관계의 변화상을 분석하여 그 시기 고려-동진 사이의 군사·외교 관계 변화가 지니는 역사적 성격을 밝혀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기에 해당하는 1219~1222년(고종 9)에 동진 사신이 몽골 사신과 함께 고려에 파견된 모습을 통해서 동진 사신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사신으로서의 입지가 몽골 사신에 비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동진 사신이 몽골 사신을 보필하는 수행자 자격으로서 사행길 안내 및 호위, 고려 측 세공(공물) 운반 및 몽골 사신과의 분배, 금나라 정벌을 위한 助軍 요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론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동진이 1224년(고종 11)에 고려에 대해 화친을 시도한 내막과 고려의 외교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동진이 화친 조건으로 고려에 요청한 사안이 무엇이며 고려가 그들의 요청에 쉽사리 호응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여진문자를 이해하고 있었던 동진 사람 周漢의 고려 내투 배경과 개경 조정의 내투인 활용(여진문자 교육)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우선 1225년(고종 12)부터 개시된 동진의 고려 침공과 고려 측의 군사적 대응 모습 및 전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1229년(고종 16)에 동진이 갑자기 고려 측에 다시 화친을 제의한 내막과 고려왕 고종 및 무인집정 최우가 동진과 화친을 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동북면병마사 최종재가 개경 조정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북변 사람 銳爵을 통해 동진과 화친을 시도한 내막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천착할 것이다. 특히 대동진관계에 있어서 ‘예작 처형 사

건'이 고려-동진 사이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 하에서 1229년 이후 고려-동진 사이에 최소한의 외교적 교섭 창구는 열어두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그간 관심밖에 있었던 대몽전쟁기 이전 고려-동진 사이의 전쟁 및 화친 시도의 변화가 지니는 역사적 성격이 한결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해본다.

## 2. 1219~1222년 동진과 고려의 군사·외교 관계

고려가 동진과 맨 처음 접촉하게 된 것은 1219년 강동성 전투 때였다. 1218년 12월 1일에 몽골군 원수 합진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동진군 2만 명과 더불어 거란적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화주·맹주·순주·덕주 4개 성을 공파하고 강동성으로 곧바로 향하였다.<sup>9)</sup> 이때 몽골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던 주체는 동진국왕 포선만노가 파견한 완안자연 휘하의 2만 병력이었는데, 이들의 병력이 몽골군보다 2배가 더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완안자연이 거느린 동진군 2만 명은 몽골군의 부용세력으로 서 고려의 화주·맹주·순주·덕주 등 4개 성을 공파하였다. 동진군 2만 명이 몽골군과 함께 동계의 화주를 먼저 깨뜨리고 나서 북계의 맹주·순주·덕주를 공파했다는 점에서 동진군은 몽골군과 더불어 동계를 넘어서 북계 방향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진군은 화주·맹주·순주·덕주를 공파하는 데 있어서나 강동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나 몽골 측의 주된 병력으로 활용되었고 공성전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9) 『高麗史』권22, 高宗 5년 12월 己亥.

1219년 1월 강동성전투에서 고려군 원수 조충이 몽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인경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쌀 1천석을 제공하고 몽골·동진 군사와 연합하여 강동성에 농성 중인 거란유종을 섬멸함으로써<sup>10)</sup> 3년여에 걸친 거란유종과의 전쟁은 종식되었고 고려-몽골 사이에 야전에서 형제맹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 몽골군은 고려에서 철수하게 되었다.<sup>11)</sup>

이후 동진은 몽골과 화친관계를 끊어버릴 때까지<sup>12)</sup> 몽골의 부용세력으로서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고려 국경 밖에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사신 등으로 자주 고려에 왕래하였다. 이보다 먼저 강동성전투 승전 이후 동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주목된다. 1219년 2월 22일에 몽골군 원수 합진이 몽골로 돌아가면서 동진 관인과 겸종 41명을 고려 의주에 남겨두면서 “너희들은 고려 말을 배우면서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sup>13)</sup>라고 말하였다. 몽골군 원수 합진이 동진 관리와 겸종에게 한 말은 유사시 몽골군이 다시 고려에 진입해 올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물론 고려 말을 미리 배워둔 동진 관리와 겸종은 향후 유사시 몽골군의 향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몽골군 원수 합진의 철수 이후 1219년 8월 29일에 동북면병마사가 몽골과 동진이 군사를 보내 진명성 밖에 진을 치고 세공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개경 조정에 보고하였다.<sup>14)</sup> 진명성은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sup>15)</sup> 지금의 북한 강원

10) 『高麗史』권103, 列傳16, 金仁鏡 및 『高麗史』권103, 列傳16, 趙沖.

11) 『高麗史』권22, 高宗 6년 2월 己未.

12) 동진은 몽골의 칭기즈칸이 호라즘(Khorazm, Khwarezm) 원정을 떠나 자국에 전혀 신경을 쓸 틈이 없게 되자 1224년(고종 11)에 몽골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동진이 몽골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몽골 皇太弟 국왕 翰赤斤의 동진에 대한 탐학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13) 『高麗史』권22, 高宗 6년 2월 己未.

14) 『高麗史』권22, 高宗 6년 8월 壬辰.

15)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조항에서 鎮溟城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도 원산시 용천리에 있던 성이다.<sup>16)</sup> 이곳 진명성에 都部署가 설치되어 船軍을 운용하였으므로 진명성은 동계의 북쪽 해안을 여진족으로부터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7)</sup> 몽골·동진 군사가 도부서가 위치한 진명성에까지 와서 세공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장면이 흥미롭다. 몽골군은 동진군을 향도로 삼아 그들의 도움을 받고서 진명성에까지 내려와서 무력시위를 벌였음에 틀림없다. 이때 몽골군이 동진군과 더불어 진명성을 공격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나<sup>18)</sup> 진명성을 최대한 압박하는 한편 향후 세공 독촉을 위한 몽골 사신이 고려에 올 것임을 미리 주지시켰다고 보아진다.

1219년 8월 몽골·동진 군사의 진명성 앞에서의 무력시위 직후, 같은 해 9월 9일에 몽골 사신 11명과 동진국 사람 9명이 고려에 왔다.<sup>19)</sup> 이는 동진인이 몽골 사행에 포함되어 고려에 온 최초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몽골인 11명은 고려 측에 세공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온 사신이 분명하고, 동진인 9명은 몽골 사신의 길안내와 호위를 맡은 동진 사신으로 여겨진다. 몽골 사신 11명이 동진인 9명과 함께 왔다는 것은 몽골 사신이 동진국을 경유하여 고려 영토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여·몽 간 ‘형제맹약 체제’에서 몽골 사신이 동진국을 경유해서 고려 영토에 들어오게끔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동진국이 위치한 曷懶路 방면을 통하여 고려 동계로 들어왔을 것으로<sup>20)</sup> 보인다.

이후 1220년(고종 7) 9월에 몽골의 대두령관 감고약과 저고

16) (사)평화문제연구소, 「진명성」, 『조선향토대백과』, 2008.

17) 신성재, 「11세기 동계지역 해상방위와 도부서(都部署) - 진명원흥 도부서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3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244~250쪽.

18) 1219년(고종 6) 당시는 麗·蒙 사이에서 ‘兄弟盟約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몽골군은 동진군과 더불어 고려의 진명성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19) 『高麗史』권22, 高宗 6년 9월 辛丑.

20)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의 對應』, 景仁文化社, 2011, 40쪽.

여<sup>21)</sup>가 다시 동진의 2인과 더불어 다시 황태제 斡赤斤<sup>22)</sup> 국왕의 서신을 가지고 고려가 와서 공납할 것을 재촉하자 고려가 다시 방물을 바쳤다.<sup>23)</sup> 몽골 대두령관 감고약과 저고여는 동진 사신 2인과 함께 고려에 왔는데,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의 향도가 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감고약·저고여가 다시 황태제 옷치긴의 서신을 가지고 고려에 왔다고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 해인 1219년 9월 9일에도 고려에 사신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sup>24)</sup> 감고약·저고여가 요구한 공물 품목과 수량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고려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수효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공 독촉뿐만 아니라 몽골은 고려 측에 조군을 요청해왔다. 1221년(고종 8) 7월에 몽골 사신 山木鱗 등이 동진 등 4인과 더불어旨를 전하여 고려에게 여진을 정벌하는 일에 관하여 선유하였다.<sup>25)</sup> 몽골은 산목대 등 사신을 파견해서 고려가 몽골의 금나라 정벌 사업에 동참해주기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산목대 등 사신을 보낸 주체는 칭기즈칸이라기보다는 황태제 옷치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칭기즈칸은 몽골제국의 전 병력을 소집하여 호라즘 왕국을 이미 공격하고 있었으며

21) 著古與는 『高麗史』 高宗世家에서 著古與·瓜古與·扎古也, 『新元史』 本紀와 高麗傳에서는 著古與, 『元史』·『新元史』 洪福源傳에서는 着古與, 『元史』 고려전에서는 扎古雅, 『元高麗紀事』에서는 著古歟로 표기되어 있으며 모두 6가지 異稱으로 나타난다.

22) 斡赤斤은 몽골어로 태무게 옷치긴(Temüge Odčigin)이고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인데, 동방3왕가의 일원으로서 만주의 영토를 지배하였다.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옷치긴 왕가의 만주 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 소나무, 2010 참조.

23) 『元高麗紀事』 太祖皇帝 15년 9월.

24) 『高麗史』 권22, 高宗 6년 9월 辛丑에서는 몽골 사신 11명이 나타나는데 인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런데 몽골 大頭領官 堪古若·著古與가 다시 皇太弟 국왕의 서신을 가지고 고려에 와서 공납할 것을 재촉했다고 하는 장면을 눈여겨본다면, 감고약·저고여는 몽골사신단 11명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25) 『元高麗紀事』 太祖皇帝 16년 7월.

로<sup>26)</sup> 고려에 대한 일은 옷치긴이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고려왕은 몽골 사신 산목대 등이 가지고 온 표문을 받고 하례하였으나 그들의 조군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다.<sup>27)</sup>

같은 해에 몽골은 고려에 다시 세공 압박을 위해 사신을 보내왔다. 1221년 8월 8일에 몽골 사신 저고여 등 13명과 동진인 8명 및 부녀자 1명이 고려에 왔다.<sup>28)</sup> 몽골 사신 저고여는 공물 징수의 총책임자로서 동진인 8명과 더불어 동진국을 경유하여 갈라로 방면으로 고려에 왔던 것이 분명하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13일에 몽골·동진 사신 21명 중에서 8명만 대관전의 전에 오르는 것이 허용되자<sup>29)</sup> 전에 오른 몽골·동진 사신이 몽골 황태제의 균지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고려 측에게 수달피 10,000장,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솜 10,000근, 용단떡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000장, 자초 5근, 홍화·남순·주홍 각 50근, 자황·광칠·동유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몽골 사람이 선호하였던 수달피를 몽골 사신이 맨 먼저 요구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나머지 공물들도 지나치게 많은 수요이거나 고려가 감당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있었다.<sup>30)</sup> 저고여가 제시하였던 세공 품목들은 이미 동방3왕가의 수장이었던 황태제 옷치긴이 강요했던 것이었다고 보아서 무리가 아니다. 저고여는 옷치긴의 명령에 따라 고려 측이 난색을 표명할 정도로 과도하고도 희귀한 세공 품목들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26) 『元史』에 의하면, 몽골 황제 칭기즈칸은 1218년(고종 5) 호라즘(Khorazm, Khwarezm)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1220년(고종 7)에 호라즘을 멸망시켰다.

27) 당시 고려는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몽골 사신의 금나라 정벌을 위한 助軍 요청에 선뜻 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28) 『高麗史』권22, 高宗 8년 8월 己未.

29) 몽골 사신 13명 중에서 8명만 大觀殿의 殿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몽골 사신 13명 중의 대표자와 동진 사신 8명 중의 대표자를 합한 8명이 대관전의 전에 올랐을 가능성도 높다.

30) 姜在光, 앞의 책, 2011, 41쪽.

동진 사신도 대관전의 전에 올랐다는 점에서, 몽골 사신과 더불어 그들도 고려 세공을 분배해서 나눠가졌을 것으로<sup>31)</sup> 판단된다.

그런데 저고여 등은 몽골 황태제 옷치간의 균지를 전달한 후 각자 품속에 지니고 있던 거친 명주를 고려왕 앞에서 내던져버리는 오만무례를 범하였다.<sup>32)</sup> 이는 전년도에 자신이 고려에게서 세공으로 걷어간 명주의 품질이 거칠었던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저고여 등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몽골 원수 찰랄과 포흑대의 서한을 한통씩 꺼내놓았는데, 모두 수달피, 가는 명주, 솜 등의 물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몽골의 세공 요구는 그 주체 면에서 단일화 되지 못하고 다원적인 것이었으므로<sup>33)</sup> 고려 조정으로서는 커다란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임진일<sup>34)</sup>에 몽골 사신 3명과 동진인 17명이 고려에 다시 왔다.<sup>35)</sup> 몽골 사신은 동진인의 도움을 받아 고려에 왔을 터인데, 몽골 사신보다 동진 사신의 수효가 훨씬 많은 점이 이례적이다. 이때의 몽골 사신은 고려 측에 세공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로 세공을 걷어가기 위해서 파견되었다고 보아지며, 동진인 17명은 고려가 바친 세공을 실제로 갈라로 방면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1222년(고종 9) 5월 22일에 동진에서 소신·아전·훈

31)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67쪽. 고명수는 강동성전투 당시 契丹遺種 토벌에 동진군 2만의 공이 가장 컸으므로 몽골이 고려에 납공을 명할 때 동진에게도 일정량의 물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했고 고려가 부득이하게 이를 수용했다고 보았다.

32) 著古與 등 몽골 사신의 고려 국왕 고종 앞에서 벌인 혐오스러운 오만무례는 향후 고종이 무인집정 최우의 대몽항전을 돕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33) 姜在光, 앞의 책, 2011, 41~42쪽.

34) 『高麗史』世家에 나오는 壬辰日은 日子의 干支 계산에 의하면 고종 8년 12월에는 임진일이 없고, 壬申일이 있다. 이는 『高麗史』찬자가 간지 계산을 잘못했거나 원래 임신일이 맞는데 임진일로 잘못 기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임신일은 12월 21일, 혹은 22일에 해당한다.

35) 『高麗史』권22, 高宗 8년 12월 壬辰.

원 등 8명의 사신을 고려에 보내왔다.<sup>36)</sup> 이때 동진 사신만 확인되고 몽골 사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sup>37)</sup> 그래서 몽골의 부용세력이었던 동진이 소신·아전·혼원 등 8명의 사신을 고려에 보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는다.<sup>38)</sup> 같은 해 8월에 몽골 사신 31명이 고려에 왔고,<sup>39)</sup> 같은 해 10월에 저고여 등 몽골 사신 12인이 고려에 파견되어 고려 측의 세공 납부 실정을 살폈던<sup>40)</sup> 점에 주목한다면 몽골 사신 파견에 훨씬 앞서서 동진이 단독으로 사신 8명을 고려에 파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불투명한 것이다. 아마 생각건대, 다음 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고려와 동진이 국경 지대에 각자 權場을 설치해서 상호 무역을 하자고 설유하기 위해 고려에 파견된 사신이 아닐까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1223년(고종 10) 8월에 몽골 사신 산목대가 동진인 12명과 더불어 고려에 다시 와서 옷치간의 서신을 보여주며 고려 측에게 공납을 재촉하였다.<sup>41)</sup> 몽골 사신 산목대와 함께 온 동진인 12명은 산목대를 호위하는 한편 고려의 공물을 갈라로 방면으로 운반해가기 위해서 온 동진 사신들로 여겨진다. 이때 파견된 동진 사신들은 몽골과의 화친관계를 깨트리기 직전에 몽골 사신과 더불어 고려에 온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sup>42)</sup>

이상을 요약하면, 동진은 몽골군과 더불어 고려 국경에서 무

36) 『高麗史』권22, 高宗 9년 5월 甲子.

37) 동진이 1224년(고종 11) 몽골과 화친을 깨뜨리기 이전에 단독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한 유일한 사례이다.

38) 1222년(고종 9) 5월 22일에 동진에서 단독으로 召信·阿典·渾垣 등 8명의 사신을 고려에 보내와 그들이 고려 측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9) 『高麗史』권22, 高宗 9년 8월 癸巳.

40) 『元高麗紀事』太祖皇帝 17년 10월.

41) 『元高麗紀事』太祖皇帝 18년 8월.

42) 1223년(고종 10) 8월까지만 동진은 몽골 사신과 동행하면서 고려에 왔고, 1224년(고종 11) 1월 이후에 동진은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력시위를 하며 고려 측에 세공 납부를 강요하여 결국 형제맹약 체제에 의거하여 몽골이 고려로부터 해마다 세공을 받아가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갈라로 방면으로 고려에 입경하였는데, 몽골 사신을 위한 길안내, 호위 및 세공 운반 역할을 담당하였고 금나라 정벌을 위한 조군도 요청하였다. 몽골 사신뿐만 아니라 동진 사신의 대표자도 고려 궁궐 대관전의 전에 올라갔을 만큼 고려는 동진 사신을 대우해야 했으며, 동진 사신이 몽골 사신과 협의 하에 고려 측 세공을 나눠가지는 등 형제맹약 체제 안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1224년 동진의 대고려 화친 시도와 그 성격

동진은 1224년에 몽골과의 우호관계를 끊고, 갑자기 고려와 화친을 시도하였다. 동진이 고려 측에 화친을 청한 진정한 내막이 무엇이였을지 궁금해진다. 1224년 1월 11일에 동진은 사신을 고려에 보내 첩문 2통을 가지고 왔다.<sup>43)</sup> 첩문 1통에서는 칭기즈칸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와적혼은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어질지 못하여 이미 예전의 우호 관계를 끊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칭기즈칸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한 것은 몽골이 호라즘 원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와적혼 곧 황태제 옷치긴은 동진에 대해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어질지 못한 행동을 하여 몽골과 예전의 우호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43) 『高麗史』권22, 高宗 11년 1월 戊申.

다른 첩문 1통에서는 동진은 청주에, 고려는 정주<sup>44)</sup>에 각기 각장을 설치해서 예전처럼 무역하자고 제안하였다. 동진이 몽골과의 외교를 단절시켰으므로 예전처럼 서로 무역하자고 고려를 설득한 것인데, 동진은 고려와의 각장 무역을 통해 부족한 곡물과 생필품을 충당하려고 의도했음에 틀림없다. 동진이 고려 측과 무역하는 방식은 서로 정한 장소에 각장을 설치해서 상호 왕래하면서 교역품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동진이 본국에 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청주는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에 해당하며,<sup>45)</sup> 고려 측에 제안한 각장 장소는 고려 동계 관문인 정주였다.

이어서 같은 해 3월 6일에 동진국 사신이 2개월 만에 다시 고려에 왔다.<sup>46)</sup> 이때 동진국 사신이 몇 명이나 파견되었는지, 그리고 사신 파견 목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1224년 1월 동진 사신 파견과 연관 지어 고찰해보면, 동진 사신은 고려-동진 사이에 각장 설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고려에 온 것이 분명하다. 동진 사신은 고려에 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고려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 과거에 금나라가 몽골 침입을 받아 요동에서 패권을 상실했을 때 고려가 금나라 측의 곡물 교역 요청을 거부한 전례가 있었으므로<sup>47)</sup> 동진에 대해서도 각장 설치를 반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224년 3월 동진 사신 파견에 후속하는 각장 설치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한 가능성을 상정케 해준다. 고려가 동진의 각장

44)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定州조. 정주는 동계 안변도호부 등주 소속으로 옛날에 바지라고 불렀고, 1041년(정종 7) 定州防禦使로 하고 關門을 두었다. 정주는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에 해당한다(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 『국역 고려사: 世家 6』, 景仁文化社, 2008, 320쪽).

4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 위의 책, 2008, 320쪽.

46) 『高麗史』권22, 高宗 11년 3월 癸卯.

47) 『高麗史』권22, 高宗 3년 閏7월 丙戌.

설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체결된 형제맹약을 크게 의식한 탓이며, 고려가 일방적으로 형제맹약을 깨트리고 동진과 화친을 맺었을 경우 몽골의 침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sup>48)</sup>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당시 신생국이었던 동진이 고려와의 각장 무역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찾고 급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동진은 고려 측으로부터 각장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자 1224년 3월 6일 이후로는 더 이상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런 대외관계 속에서 이듬해인 1225년 1월에 고려에 온 저고여가 압록강을 건너다가 도적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발하였다. 그간 학계에서는 저고여 살해의 주범을 고려로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고,<sup>49)</sup> 더러는 파속로에서 몽골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고려 북계 방면을 약탈하였던 금나라의 哥不愛나 亏哥下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sup>50)</sup> 근래에는 1224년에 몽골과 단교한 동진이 고려 측이 각장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화친을 맺지 않자 고려-몽골 사이를 이간질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몽골 사신 저고여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51)</sup> 이 견해는 그 당시 국제정세 상으로 보면 충분히 입론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고려가 1232년 몽골에 보낸 외교문서에 의하면 고려는 동진 사람 王好非의 진술을 듣고 저고여를 살해한 주범을 우가하로 여기고 있었는데<sup>52)</sup> 고려 측 외교문서에서처럼 우가하가 저고여를 살해

48)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70쪽.

49) 箭内互, 「蒙古の高麗經略-附: 蒙使著古與の遭難-」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4, 1918, 270~275쪽; 최운정, 「몽골의 요동·고려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129~132쪽.

50) 姜在光, 앞의 책, 2011, 53~54쪽.

51)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74~376쪽.

52) 『高麗史』권23, 高宗 19년 11월 「陳情狀」 참조.

한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동진이 저고여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고려와의 화친 체결이 어렵게 되자 그 대신에 고려-몽골 사이를 이간질하여 고려-몽골의 전쟁을 유발한 주범일 수 있다.

동진이 각장 설치 요청을 매개로 하여 고려와 화친을 시도한 지 1년 후에 동진 사람의 내투가 눈에 띈다. 1225년(고종 12) 6월 2일에 동진인 주한이 고려 북계 흥화도 서창진으로 내투했는데, 주한은 小字文書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최우정권이 그를 개경으로 불러서 고려인들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여진문자를 배우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sup>53)</sup> 1225년에 동진 사람 주한이 고려에 내투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동진 사이의 화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경지대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장차 고려-동진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고려에 귀순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주한이 여진문자인 소자<sup>54)</sup>로 적힌 문서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동진의 지식인층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진국의 관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문자인 소자를 이해하고 있었던 내투인 주한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소자를 고려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이로써 고려에서 여진문자인 소자를 배우는 것이 시작되었다. 고려 조정에서 주한을 개경으로 불러들인 것은 여진문자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한으로부터 동진 내부의 정황을 상세하게 알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高麗史』권22, 高宗 12년 6월 辛卯.

54) 사료 D에서 나오는 小字는 金나라 熙宗(完顏亶) 때인 1138년(인종 16)에 만들어진 ‘女眞小字’를 말한다. 鄭光, 「契丹·女眞文字と高麗の口訣字」 『일본문화연구』3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405쪽.

#### 4. 1225~1229년 동진의 고려 침공 및 화친 재시도와 고려의 대응

고려 조정은 1224년 동진의 화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고여피살사건의 진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몽골과의 형제맹약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에 몽골과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린 동진이 1225년부터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공해왔다.

먼저, 1225년 8월 3일에 동진군 100여 명이 북계 최전방 관문인 삭주를 침략하였다.<sup>55)</sup> 동진군의 북계 삭주 침입은 동진 사람 주한이 북계 서창진으로 내투한 지 2개월만의 사건이었다. 동진군의 침입은 이때로부터 개시되어 1229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동진군 100여 명의 삭주 침입은 2개월 전 동진인 주한의 내투를 받아준 고려에 대한 반감과 아울러 각장 설치 제의에 고려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군사행동이었다고 보아진다. 동진군 100여 명의 삭주 침입 결과 및 동진군에 대한 고려 측 방어 내용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13일에 변방 장수인 최량이 우가하의 부하인 焦周馬 등 여러 명을 사로잡아서 조정에 바친 사실이 발견된다.<sup>56)</sup> 우가하는 금나라에서 자립한 요동의 군벌로 파속로에 근거지를 두면서 고려 북계를 노략질하였는데,<sup>57)</sup> 고려가 같은 해

55) 『高麗史』권22, 高宗 12년 8월 辛卯.

56) 『高麗史』권22, 高宗 12년 8월 辛卯. 여기서 崔亮은 그가 ‘邊將’ 이었다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변장’이 북계 주진군 장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경에서 북계로 파견된 分道將軍·防守將軍이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최량이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펼쳐 丐哥下의 막료였던 焦周馬 등을 사로잡아 조정에 바친 것을 통해서 그는 개경에서 파견된 분도장군·방수장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57) 『高麗史』권23, 高宗 19년 11월 『陳情狀』 참조.

8월 3일 동진군의 침입을 받은 지 10일 후에 변방 장수 최량이 우가하의 부하 초주마 등을 사로잡는 큰 전과를 올렸다. 고려 북계 장수 최량은 삭주를 침입한 동진군 100여 명을 8월 3일 이후에 추격하다가 우가하의 부하 초주마 부대와 조우하게 되어 그들을 제압하고 생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2년 후인 1227년 9월 6일에 동계병마사가 동진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였다고 보고하자 우군병마사에 상장군 조염경, 우군지병마사에 대장군 김승준, 중군병마사에 추밀원사 정공수, 중군지병마사에 김양경, 후군병마사에 상장군 정순우, 후군지병마사에 대장군 김지성을 임명하여 3군을 거느리고 동진군을 방어하게 하였다.<sup>58)</sup> 이때 최우정권이 3군을 편성할 정도였다면 정주·장주를 침략한 동진군의 군사규모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sup>59)</sup> 고려 3군은 같은 해 10월에 동계 宜州<sup>60)</sup>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sup>61)</sup> 같은 달 18일에 동진군이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자 고려군이 패배하였다.<sup>62)</sup> 이때 고려 3군은 동계 의주의 군사적 요충지인 철관에 이미 매복해 있던 동진 기병대로부터<sup>63)</sup> 기습을 받아 패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우정권은 같은 해 11월 18일에 고려 3군 원수부가 동진군에게 패배당한 책임을 물

58) 『高麗史』권22, 高宗 14년 9월 壬午.

59) 그 당시 동진군의 군사규모는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1219년(고종 6) 강동성전투 때 동진군 2만 명이 참전하였으므로 동진군의 군사규모는 최대 2만 명 이내였다고 생각되며, 적어도 수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였다고 여겨진다.

60) 宜州는 고려 초에 溟州라 불렀고, 995년(성종 14)에 防禦使를 두었으며, 1108년(예종 3)에 성을 쌓았다. 의주에는 要害處로 鐵關이 있는데 東界 방어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宜州 참조.

61)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0월 己未.

62)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0월 甲子.

63) 동계 요해처 鐵關에 매복해서 고려 3군을 기습 공격하였던 동진군의 주력은 기병대였다고 판단된다. 1227년(고종 14) 철관전투 이후에도 동진은 주력군이었던 기병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전술로 동계 지역을 방어하였던 고려군을 상당히 괴롭혔다.

어, 정공수는 남경유수로, 조염경은 명주부사로 좌천시켰고, 정순우는 백령도에 귀양 보내는<sup>64)</sup> 단호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1월 14일에 낭장 김이생<sup>65)</sup>이 자문지유에 임명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북계의 병사들을 이끌고 밤에 화주성에 들어가 적군으로부터 성을 굳게 지켰으며 기습적으로 출성전을 전개하여 적군을 1,100명이나 베었으므로 이 직책을 받았다는 기록을<sup>66)</sup>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적군은 동진군이 분명하며, 낭장 김이생은 북계 병사들을 이끌고 동진군에게 침입을 당한 동계를 구원하기 위해 화주성으로 급히 달려갔던 북계의 지원군으로 생각된다. 이때 낭장 김이생은 북계명마사(서북면병마사)의 지시 하에 북계 병사들과 더불어 화주성에 급히 입성했다고 보아진다. 그가 화주성에 들어간 시점은 고려 3군이 동진군에게 패배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하다. 하여튼 낭장 김이생 휘하 북계 병사들의 활약으로 화주성을 지켜냈고 적군을 1,100명이나 죽였다는 사실은 1227년 10월 동진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하지는 못했어도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1228년(고종 15) 6월 11일에 동진의 모극<sup>67)</sup>인 왕노비, 사력인 고린·간란가가 고려에 내투하였음이<sup>68)</sup> 확인된다. 동진의 모극 왕노비 등이 고려에 내투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64)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1월 癸巳.

65) 金利生은 1227년(고종 14) 당시 북계를 방어하였던 낭장이었고, 대몽전쟁기에는 상장군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1226년(고종 13)에는 하급 무관직인 별장이었는데, 西北面知兵馬事 李允誠의 명령을 받고 군사 200여 인을 휘하에 거느리고서 압록강을 건너 石城을 공격하여 弓哥下의 군대를 깨뜨린 장본인이었다. 이때 석성 공파에 대한 전공을 인정받아 별장에서 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66) 『高麗史』권22, 高宗 14년 11월 己丑.

67) 동진의 矛克은 金나라 때 百夫長을 일컫는 謀克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金史』권44, 志25, 兵志 참조.

68) 『高麗史』권22, 高宗 15년 6월 壬子.

이들이 고려에 내투하였다는 것은 동진 조정 내부에서 매우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불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왕노비 등이 1227년 동진의 고려 동계 공격에서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선만노에 의해 처벌받을 운명에 처하자 1228년 6월에 고려에 내투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어서 같은 해 7월 29일에 동북면병마사가 동진군 1,000여 명이 장평진<sup>69)</sup>에 와서 진을 친 것을 보고하였다.<sup>70)</sup> 장평진에 진을 친 동진군 수효가 1,000여 명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그들은 전체 동진군의 선봉대였을 것으로 보이며, 장차 동진군 본대를 기다리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동진군의 장평진 내습에 대하여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보내 방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진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3군을 출동시키지 않았다.<sup>71)</sup> 동진군 1,000여 명이 갑자기 퇴각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고려 3군이 곧 동계 장평진 쪽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을 접한 상황 속에서 동진군 본진이 그때까지 장평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여튼 1228년 7월 하순에 동진군은 장평진을 침입해왔으나 얼마 안 있어 그대로 철군함으로써 고려-동진 사이에서 본격적인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동진군의 침입 방식은 고려 측을 난감하게 하였는데, 이는 고종의 조서를 보면 그러한 상황이 자세히 드러난다. 같은 해 8월 16일에 고종은 조서를 내려 “동진이 국경 근처에 몰래 진을 치고 있다가 여러 차례 변방을 침략하였는데, 고려가 군대를 출동시켜 토벌하면 매번 도망갔다가 고려군이 철군하면 다시

69) 長平鎮은 옛날에 古叱達이라고 불렀고, 969(광종 20)에 처음으로 城堡를 쌓았으며, 鎮將이 있었다.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長平鎮.

70) 『高麗史』권22, 高宗 15년 7월 庚子.

71) 『高麗史』권22, 高宗 15년 7월 庚子.

침입하여 틈을 엿보니 그들을 방어할 어떤 책략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서,<sup>72)</sup> 문·무 4품관, 대성<sup>73)</sup> 6품관 이상은 각기 좋은 계책을 써서 올리라고 하였다. 그 당시가 최우정권 시기였고, 고종이 최우정권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으므로<sup>74)</sup> 고종이 조서를 내려 말한 내용은 실제로는 무인집정 최우가 조정의 문·무 관료에게 지시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외형상 고종의 조서라는 형식을 통해 최우는 동진의 치고 빠지기 식의 전술에 대한 마땅한 방어책을 문·무 4품관, 대성 6품관 이상에게 물어보았던 셈인데, 이는 그만큼 치고 빠지는 데 능숙한 동진 군대를 제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려가 동진의 동계 침입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그들을 막을 계책을 논의하자 1229년부터 동진이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다. 1229년 2월 13일에 동북면병마사가 동진 사람이 함주<sup>75)</sup>에 도착하여 화친을 요청한다고 개경 조정에 보고하였다.<sup>76)</sup> 동진 사람의 화친 요청에 대응하여 국왕 고종이 친히 식목녹사 노연을 파견하여 화친의 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보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동진이 갑자기 화친을 먼저 제의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1229년 이전에 몽골의 요동 파속로 경략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동진이 고려에 화친을 제의해서 반몽연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견해가<sup>77)</sup>

72) 『高麗史』권22, 高宗 15년 8월 丙辰.

73) 臺省은 고려시대에 御史臺의 臺官과 中書門下省의 省郎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74) 고종은 최씨무인정권에 잘 순응하였던 임금이었다. 특히 著古興 등 몽골 사신이 고종 자신에게 오만무례를 범한 이후부터는 무인집정 최우와 더욱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몽골·동진에 대한 和戰兩面策 등 최우정권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75) 咸州는 동계 지역에서도 북방에 위치하는데, 1108년(예종 3)에 성을 쌓았으며 윤관이 개척한 동북 9성에 포함되었다. 『高麗史』권36, 兵志2, 城堡.

76) 『高麗史』권22, 高宗 15년 8월 丙辰.

77) 고명수, 앞의 논문, 2017, 376~378쪽.

있다. 그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 상으로 보면 타당한 견해라고 여겨지는데, 1229년 2월 당시 동진 사람이 고려 측 노연에게 내걸었던 화친의 조건은 전혀 알 수 없다.<sup>78)</sup>

그런데 같은 해 5월 7일 노연이 동계에서 돌아왔고 동계부방장군 김중온이 노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김중온이 상소를 올린 이유는 노연이 겁을 먹어서 동진과 화친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무인집정 최우가 노하여 노연을 가구소에 가두고 이전 거제현령인 진용갑을 장평진장으로 임명하여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sup>79)</sup> 김중온이 상소를 올려 노연이 겁을 먹어서 동진과 화친을 맺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노연이 겁을 먹어 동진 사람을 아예 만나보지도 않았거나 동진 사람과 만났어도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기보다는 그가 동진국의 화친 조건을 듣고서 고려 측에게 유리하게끔 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동진과 화친을 맺지 못한 노연은 최우에 의해 가구소에 감금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후 최우는 이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장평진장으로 삼아 다시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sup>80)</sup> 이때 장평진장 진용갑이 동진과의 화친 체결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생각건대, 진용갑은 동진 사람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정황을 증명하는 사례로써 같은 해 5월 11일에 동진이

78) 고려 동계 咸州에 도착한 동진인이 화친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고려해보았을 때, 고려-동진 사이의 榷場 설치 및 물물교역 시행, 고려 측에서 동진으로의 식량 지원, 몽골군 이동 상황과 전황에 대한 정보 공유, 弓罽下·罽不愛에 대한 견제 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9) 『高麗史』권22, 高宗 16년 5월 甲戌.

80) 최우가 국왕 고종이 파견한 式目錄事 盧演을 대신하여 이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 長平鎭長으로 삼아 동진과 화친을 체결케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혹시 진용갑이 예전에 동계 국경 근처에서 근무하면서 여진족과 교류하는 데 능숙해서 그를 발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볼 뿐이다.

화주를 침입하여 소와 말, 사람들을 약탈하였는데, 장평진장 진용갑이 사람을 보내어 설득하자 모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진용갑의 설득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용갑과 동진 사람이 화친 조건을 조율하였고 몇 가지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화주를 침입한 동진군이 약탈한 고려인과 소·말 등을 모두 버려두고 갔을 리가 없다. 화주를 침입하여 약탈하였던 동진이 진용갑의 설득에 동의하여 물러났더라도, 그 당시 진용갑이 고려 측 대표자로서 동진과의 화친을 일괄 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같은 해 6월 15일에 고려의 북변 사람으로 예전에 변방의 별장이었던 예작이 동진에서 처형되었음을<sup>81)</sup> 확인할 수 있다. 북변 사람 예작은 여러 차례 사기죄를 범해 일찍이 화주에 유배된 자였는데, 그 자신이 동진의 도로가 평탄한지 험난한지,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동북면병마사였던 최종재가 이러한 예작의 말을 믿고 예작 등 3명을 동진에 보내어 동진의 소식을 염탐하게 하였다. 예작이 원래 북변 사람이었고 변방의 별장을 지낸 적이 있었으며 그가 동진의 지리를 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북변에 살았던 여진족 출신으로 생각된다.<sup>82)</sup>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예작이 말한 바를 신빙하고서 그를 동진에 보내어 동진의 소식을 염탐하게 하였던 것인데, 최종재는 개경 조정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작을 동진에 보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 그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예작을 동진에 보낸 것은 동북면병마사로서

81) 『高麗史』권22, 高宗 16년 6월 辛亥.

82) 『高麗史』에서는 銳爵이 北邊 사람이었고 예전에 북변의 별장을 지낸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북변은 꼭 북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북쪽 변방을 가리키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예작은 북계 혹은 동계의 최전방을 지키는 별장이었던 셈이다. 그가 성씨가 없고 본래 북변 사람이었다 하였으므로 아마 추측컨대 여진족 출신 토착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동진과의 화친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보아진다.<sup>83)</sup>

최종재가 몰래 파견한 예작은 동진에게 우리나라(고려)가 귀국과 화친을 맺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동진은 예작의 말을 신빙하고서 예작의 일행 중 1명을 고려로 돌려보내 고려 측의 회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동진에서 보낸 예작 일행의 말을 의심하여 주저하면서 회답하지 않았다. 고려 조정은 동진에서 보내온 예작 일행 1명이 국가가 보낸 공식적인 사신이 아니었고, 동진이 고려와 화친을 체결하겠다고 나선 저의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을 법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동진에서는 예작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그를 붙잡아 참수하였던 것이다. 고려 조정에서, 특히 최우정권이 예작 일행 1명의 말을 의심하였던 것은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로부터 동진과의 화친 교섭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북면병마사 최종재의 독단적인 판단과 예작의 선부른 행동이 예작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sup>84)</sup> 고려-동진 사이의 화친 교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예작 처형 사건’으로 동진과의 화친 체결이 난항에 부딪히자 최우는 같은 해 7월 27일에 양부(중서문하성과 추밀원)의 재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동진군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였다.<sup>85)</sup> 최우는 ‘예작 처형 사건’이 벌어졌더라도 동진과의 화친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진군을 막을 계획을

83) 1229년(고종 16) 당시 동진과의 화친 교섭은 장평진장 진용갑이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그보다 직위가 높은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자신이 역량을 발휘하여 동진과의 화친 교섭에서 공을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다.

84) 동진에서는 고려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인 화친 체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가 파견한 예작을 고려 측의 밀정으로 여겼을 것이며, 즉시 예작을 처형해서 동진의 내부사정을 고려에 알리지 못하게 했을 법하다.

85) 『高麗史』권22, 高宗 16년 7월 壬辰.

논의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같은 해 8월 15일에 유사에서 최종재가 함부로 예작을 동진에 보내서 국경지방에서 틈을 만들었다고 탄핵하였으므로 최종재를 양주부사로 좌천시켰다는<sup>86)</sup> 점이다. 유사가 최종재를 탄핵한 이유는 최종재가 함부로 동진에 예작을 보내서 고려-동진 사이에 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최우가 최종재를 양주부사로 좌천시킨 것도 고려-동진 사이의 화친 체결에 최종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8월 28일에 동진 사람 40명이 온적한을 추격한다는 말을 핑계 삼아 동계의 화주까지 도착하였는데,<sup>87)</sup> 이는 대몽전쟁 이전 동진과의 마지막 외교관계였다. 화주에 도착한 동진 사람 40명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화주 일대에서 약탈행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재차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하기 위해서 혹은 고려 측의 동향을 정탐하기 위해서 화주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진 사람 40명이 추격하였다는 온적한은 『금사』 열전에 의하면, 溫迪罕靑狗로 여겨지거나와<sup>88)</sup> 그는 그 당시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진 사람들이 온적한 추격을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고려 동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만약 화주에 도착한 동진 사람들이 재차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몽

86) 『高麗史』권22, 高宗 16년 8월 庚戌.

87) 『高麗史』권22, 高宗 16년 8월 癸亥.

88) 『金史』列傳 完顏阿里不孫을 보면, 知廣寧府事 溫迪罕靑狗가 金나라 婆速路 蓋州에 주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金나라 말엽 參知政事·權右副元帥·行尙書省·元帥府로 임명되어 파속로 일대를 통괄하였던 完顏阿里不孫에게 황제의 詔書를 받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다. 『금사』 열전에 등장하는 溫迪罕靑狗가 『高麗史』에 나오는 溫迪罕과 동일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金史』권103, 列傳41, 完顏阿里不孫 참조.

골의 요동 경략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동진이 고려와 전쟁을 회피하고 서로 연대하는 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높다.

최우정권은 ‘예작 처형 사건’과 동북면병마사 최종재 좌천 등 동진과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진과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그들과 외교적 협상과 타협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1229년 8월 이후 1231년 대몽전쟁 직전까지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sup>89)</sup> 1232년 몽골 제2차 침입 때 처인성 승첩 직후 최우정권이 동진에 외교문서(「答東眞書」)<sup>90)</sup>를 보내 처인성에서 패배한 몽골군의 동태와 철군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sup>91)</sup>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1229년에 고려-동진 사이에서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서 화친 체결 노력이 있어왔다. 다만, ‘예작 처형 사건’ 등으로 고려-동진 사이에서 본격적인 화친 체결은 수포로 돌아간 형편이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외교문서 왕래 등 외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외교적 루트는 유지한 채로 1231년 대몽전쟁을 맞이하였다고 판단된다.

89) 1229년(고종 16) 8월 28일부터 제1차 몽골 침입이 있었던 1231년(고종 18) 8월 이전까지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90) 1232년(고종 19) 12월에 동진에 보낸 외교문서(「答東眞書」)는 최우정권의 문사 이규보가 작성한 것이다.

91) 『高麗史』권23, 高宗 19년 12월 「答東眞書」 참조.

## 5. 맺음말

이 글에서 대몽전쟁기(1231~1259) 이전인 1219~1229년까지 고려-동진 사이에서 군사·외교 관계 변화 모습을 분석하여 형제맹약기 고려가 동진에 대하여 화·전 양면에서 어떻게 대응하였고 어떠한 군사·외교적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밝혀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기에 해당하는 1219~1222년에 몽골 사신과 함께 고려에 파견된 동진 사신의 주된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사신으로서의 입지가 대략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동진은 몽골군과 함께 고려 국경인 동계의 진명성 밖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고려 측에 세공 납부를 강요하여 결국 몽골이 해마다 고려로부터 세공을 받아가게 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의 보조자로서 갈라로 방면으로 자국을 거쳐 고려에 입경하였는데, 총 7회(몽골 사신 동행 6회, 단독 파견 1회) 고려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몽골 사신을 위한 사행길 안내, 몽골 사신 호위 및 세공 운반, 몽골 사신과 세공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몽골에 부응하여 금나라 정벌을 위한 조군도 고려 측에 요청하였다. 몽골 사신뿐만 아니라 동진 사신의 대표자도 고려 궁궐 대관전의 전에 올라갔을 만큼 고려로서는 동진 사신을 몽골 사신 못지않게 대우해주어야 했다. 형제맹약기 동진 사신은 몽골 사신과 협의 하에 고려가 바친 세공을 나눠가졌던 것으로 이해하여 보았다. 동진이 몽골과 화친을 깨뜨리기 이전에 동진은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 체제 안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동진이 1224년에 몽골에 이반하고 고려에 대해 화친을 제의한 내막과 고려 측의 외교적 대응 모습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조명해보았다. 동진은 1224년 1월에 몽골에 이반하였는데, 그때는 칭기즈칸이 이미 호라즘 원정을 떠났던 시기였다. 동진이 몽골에 이반한 이유는 칭기즈칸의 막내 동생으로서 그 당시 몽골제국을 감국하고 있던 옷치긴이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동진은 1224년 1월에 몽골과 절교했음을 고려 측에 알리면서 고려-동진이 국경 근처(동진은 청주, 고려는 정주)에 서로 각장을 설치해서 무역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동진 측의 각장 설치 요청은 그들의 식량난 및 생필품 해결을 위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고려는 동진의 각장 설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는 고려-몽골 사이의 형제맹약 체제에서 고려가 동진과 화친하고 몽골을 배반하는 것은 장차 몽골군의 침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와 더불어, 신생국가였던 동진이 고려와의 각장 무역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찾고 급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고려가 동진의 각장 설치 요청을 거부한 이후 1225년부터 개시된 동진의 고려 침공과 고려의 군사적 대응 모습 및 전과를 상세히 분석해보았다. 또한 1229년에 동진이 고려 측에 다시 화친을 제의한 내막과 고려왕 고종, 무인집정 최우, 동북면병마사 최종재가 동진과 화친을 체결하기 위해 펼친 외교적 노력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진은 고려가 각장 설치 등 화친 제의를 거부하자, 1225년 8월 3일에 군사 100여 명을 보내 삭주를 침공하였다. 동진군의 삭주 침공 결과는 사료 상에서 보이지 않으며, 북계 분도장군(혹은 방수장군)으로 여겨지는 최량이 동진군의 뒤를 쫓아 압록강을 건너다가 우가하의 부하 초주마를 사로잡아 개경 조정에 바치는 뜻밖

의 전과를 세웠다. 이후 1227년 9월에 동진군이 동계의 정주·장주를 침략하자 최우정권은 고려 3군을 급히 편성하여 동계 방면으로 내보냈고 고려 3군은 동진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계 의주 방면으로 진군했으나 동진군에게 패배하였다. 이때의 패배는 동계의 요해처 철관에 미리 매복하고 있던 동진 기마병들에게 급습을 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계의 낭장 김이생이 서북면병마사의 명령 하에 북계 병사들을 이끌고 미리 화주성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동진군과 화주성에서 싸워 적군을 1,100명이나 베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고 그는 자문지유로 승진하였다. 이는 고려 3군의 패배 속에서도 전세를 전환시키는 고려군의 승리였으며, 대동진전쟁에서 고려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승 사례였다.

그런데 1229년 2월부터 동진이 전쟁을 멈추고 갑자기 고려 측에 화친을 제의해왔는데, 이는 호라즘원정을 끝마친 몽골의 동방경략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어 몽골군이 요동으로 진입해옴에 따라 동진이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려와 화친을 모색했기 때문이었다. 동진의 화친 제의에 고려왕 고종은 식목녹사 노연을 동계로 파견해 동진의 화친 조건을 알아보게 하였다. 하지만 노연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무인 집정 최우는 노연을 가구소에 가두었으며 그 대신에 이전 거제현령 진용갑을 동계로 보내 동진과 화친을 맺게 하였다. 최우가 믿고 파견한 진용갑은 동진과 완전하게 화친을 체결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들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그 근거로써, 1229년 5월 11일에 동진이 화주를 침입하여 소와 말, 사람들을 약탈하였는데, 장평진장 진용갑이 사람을 보내어 설득하자 모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진용갑이 동진과 화친 조건을 조율하지 않았다면 그의 설득

이 통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진용갑이 동진을 설득하고 있던 시기에,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고려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북변 사람 예작을 동진국으로 몰내 보내 동진과 화친을 도모하였다. 최종재가 단독으로 예작을 동진국으로 보낸 것은 북변 사람 예작이 변방의 별장을 지낸 적이 있었던 데다가 동진의 지리적인 상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동진의 소식을 염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진국에 파견된 예작은 여진족 출신으로 생각되는데, 그는 고려 측의 화친 답변이 오지 않자 동진국에서 참수당하였다. 예작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동북면병마사 최종재는 최우정권에 의해 좌천되었고 고려-동진 외교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예작 처형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최우정권은 동진과 외교적 협상과 타협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1231년 대몽전쟁 직전까지 고려와 동진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1232년 몽골 제2차 침입 때 처인성 승첩 직후 최우정권이 이규보를 통해 동진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몽골군의 동태와 이동 방향 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1229년 당시 최우정권은 외교문서 왕래 등 외교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외교적 루트는 유지한 채로 이후 대몽전쟁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史』 『元史』 『元高麗紀事』

### 2. 단행본

- 강재광,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景仁文化社, 2011.  
고명수, 『몽골-고려 관계 연구』, 혜안, 201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편, 『국역 고려사: 世家 6』, 景仁文化社, 2008.  
윤용혁,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이명미, 『고려·몽골 관계 깊이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朴眞奭, 『東夏史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1995.  
薛磊, 『元代東北統治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王慎榮·趙鳴岐, 『東夏史』,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0.

### 3. 연구 논문

- 강재광, 「대몽전쟁기 동진(東眞)의 고려 침입과 고려의 군사적 대응」, 『한국중세사연구』 75, 2023.  
고명수,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歷史學報』 225, 2015.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고병익,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69.  
신성재, 「11세기 동계지역 해상방위와 도부서(都部署) - 진명원흥 도부서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3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 신안식, 「고려 고종초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김취려의 활약」,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 이개석, 「麗蒙兄弟盟約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사료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01, 2010.
- 이개석, 「몽골·동진·고려 연합군에 의한 강동성 함락과 여몽형제맹약의 성격」,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 이명미, 「강동성의 맹약에서 강화(講和)에 이르기까지」, 『고려·몽골 관계 깊이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 이익주, 「1219년(高宗 6) 고려-몽골 ‘兄弟盟約’ 再論」, 『東方學志』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 이재선, 「고려 고종대 대동진관계의 추이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윤정, 「몽골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 魏志江, 「論金末蒙古·東夏與高麗的關係」, 『韓國學論文集』 8, 2000.
- 箭内互, 「蒙古の高麗經略-附: 蒙使著古與の遭難-」,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4, 1918.
- 鄭光, 「契丹·女真文字と高麗の口訣字」 『일본문화연구』 36,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 4. 기타 자료

- (사)평화문제연구소, 「진명성」, 『조선향토대백과』,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Militar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Dongjin(東眞)  
before the War period against Mongol

Kang, Jae-Gwang

After signing a brotherhood pact with Mongol in 1219, Goryeo also established certain diplomatic relations with Dongjin(東眞). The Dongjin envoy came to Goryeo from 1219 to 1222 as an assistant to the Mongol envoy toward Galaro(曷懶路). They were responsible for guiding the Mongol envoy, escorting and transporting Mongol envoys, and distributing Mongol envoys and crafts.

Dongjin fell to Mongol in January 1224, and offered Hwachin to the Goryeo side on the condition that Gakjang(樵場) be installed. Dongjin's request for the installation of Gakjang was intended to solve their food shortages and daily necessities. Goryeo did not accept Dongjin's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Gakjang, mainly because of concerns that Goryeo's friendly relations with Dongjin and betraying Mongol would lead to Mongol invasion in the future.

After Goryeo rejected Dongjin's offer to installation of Gakjang, the war began between Goryeo and Dongjin from 1225. Later, in September 1227, when Dongjin-gun invaded Jeongju(定州) and Jangju(長州), the Choi Woo(崔瑀)'s political power formed three Goryeo troops to fight, but was defeated in the Battle of Uiju(宜州). However, Kim Yi-saeng(金利生), Nangjang(郎將) of Bukgye, fought

the Dongjin Army at Hwaju Castle(和州城) and cut 1,100 enemies. This put an end to the war with Dongjin.

Dongjin suddenly offered Hwachin to the Goryeo in February 1229. This was because Dongjin had a great sense of crisis as Mongol, which began to attack Liaodong(遼東). King Gojong(高宗) dispatched No Yeon(盧演), Sikmoknoksa(式目錄事) to Dongjin to find out the conditions of Dongjin's Hwachin, but No Yeon was unable to carry out his mission. As a result, the military ruler, Choi Woo sent Jin Yong-gap(陳龍甲), a former Geoje-hyeon-ryeong(巨濟縣令), to form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Dongjin, and it is estimated that Jin Yong-gap had reached a state of coordinating the conditions of reconciliation with Dongjin. At a time when Jin Yong-gap was persuading Dongjin, Choi Jong-jae(崔宗梓), Byeongmasa of Donggye(東界兵馬使) sent Yejak(銳爵) to Dongjin to promote Dongjin and Hwachin without reporting it to the Goryeo Dynasty. However, Yejak was mistaken for a spy and executed in Dongjin. Despite Yejak execution case, it is believed that the Choi Woo's political power has maintained an attitude to pursue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Dongjin, such as the exchange of diplomatic documents.

Keywords : Mongol, Dongjin(東眞), Galaro(曷懶路), Hwachin(和親), Gakjang(樵場), Kim Yi-saeng(金利生), Hwaju Castle battle, Jin Yong-gap(陳龍甲), Yejak(銳爵)